

한국교회의 주보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regarding the weekly bulletin editing design of the Korean church

임 태 윤

경남대학교

임 태 윤
Lim, Tae-Yun

계명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동 대학원졸업
임태윤 작품전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마산, 진해, 통영 및 기업체CI다수제작
한국비주얼디자인협회의 테크노 학회장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회의 이사
한국교육미협(학회)회장
진해시 시정자문교수단
경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본론

1. 주보의 개념
2. 주보의 제작
3. 현대주보의 레이아웃
 - 1). 크기 및 면수
 - 2). 사진 및 Illustration의 유무
 - 3). 수록된 Illustration의 종류
 - 4). 내지에 사용된 주색상
 - 5). 수록된 주내용
4. 교인들의에 의한 의식조사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논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주보편집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방법은 전국교회 10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재 사용중인 주보를 수집하고 또한 주보를 사용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보에 대한 디자인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된내용은 주보의 크기 및 면수, 일러스트레이션의 유무,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 내지에 사용된 주 색상 및 수록된 내용 등이며 교인들을 대상으로한 주보의 의식조사에 관한 내용은 주보의 기능과 필요성, 1면에 교회사진을 싣는것에 대해, 칼라인쇄에 대해, 주보활용도에 관한 것등인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사용중인 주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연구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보의 크기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용적이지 못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이 획일화되고 차별화되지 않은점, 상대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적은점, 전체적인 색상이 단조롭고 교회사진들의 크기나 위치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각교회마다 차별화 할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제작의 필요성과 교회사진 게재에 대한 문제점을 재고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사진을 1면에 싣는것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볼 때 앞으로 주보디자인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향후 주보디자인 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tents about a weekly paper design of a Korean church. Comparison analyzed each other the result that a study method collected the weekly which was a current busy and selected about 100 nationwide church at random, and checked design cognition about a weekly report.

Principal contents of this text are size of the weekly report and number of pages of the weekly bulletin, an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an illustration and a kind of an illustration, used a color and included contents in the weekly paper. Contents about a cognition examination to have done believers with a target are necessity and function of the weekly, loading a church picture on the first page, a thing about collar print, and practical use of the weekly. using the previous examination data, this study was researched about a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currently using the weekly bulletin.

The examination result, Size of the weekly report of churches is mostly different and cannot be practical on a case-by-case basis A standardization worked, and there was an illustration of the weekly and did not become discrimination serious trouble. A color seemed to be a monotone, and the size of a church pictures or the situation appeared by needing a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ach churches appeared by must consider production necessity of an illustration to be able to do discrimination anger

and a problem of a picture stowage. There are more a lot of people than a thought who had a negative sight about publishing a church picture in the first pag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ot when we design a weekly paper.

with a base to follow contents to be above, this paper that presented the course in order to be able to become help, but it left a purpose in design production with a problem proposal a little from now on.

Keyword

Korean church

Weekly bulletin

Illustration

1. 서론

1. 연구목적

현대교회의 정보전달 매체에서 중요한 한 분야를 찾는다면 당연히 주보일 것이다. 주보란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일컫는다. 또는 1주일에 1번씩 작성하여 올리는 보고서를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매주 1번씩 예배의 안내와 교회소식, 홍보자료등을 목적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현재 교회의 주보는 4-6면 또는 그 이상 발행되며, 각종예배순서, 교회 소식 및 교인과 헌금통계 등을 수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주보는 목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교매체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보는 예배, 전도, 홍보 등의 역할을 겸한다.

이러한 주보가 지역별, 교회별로 다소 차이점을 보이며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분위기나 정서를 알아보는 데는 좋으나 디자인적으로는 정리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보들에 관련된 편집 레이아웃과 디자인요소를 분석하고 연구해 봄으로서 일반 화보나 각종 홍보지들과의 디자인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주보 편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도시와 전국 교회를 무작위로 선정한 101개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들 교회에 우편으로 연락하여 주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보의 크기, 1면에 나타

난 화보의 유무와 종류, 색상, 레이아웃의 형태 및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주보실태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코자 하였다.

II. 본론

1. 주보의 개념

주보란 교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예배순서지를 말하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주로 예배순서를 알리는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예배순서외에도 신앙성숙과 관련된 각종정보들을 수록해 놓음으로서 성도들의 교재와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제작되고 있다.

또한 주보를 이용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며 멀리 떨어진 자녀나 친척들에게 우송함으로서 주보를 통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

따라서 주보도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매체로서의 역할까지 한다고 본다면 그 제작과정이나 디자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주보의 제작

주보는 교회 전체의 사역과 복음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매주일의 예배가 높고 고상한 목표를 창조해 내도록 꾸며져야 한다. 주보의 균형이나 형태, 구성과 배열 등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주보가 되도록 주보 준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주일 낮예배 순서나 저녁 찬양예배 순서 등 전체순서가 짜임새 있고 균형이 잡혀야 하며, 명확한 사상이 있어야 한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용서 등에 관한 설교라면 찬송 등 모든 순서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사상의 일

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보에는 예배와 교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타 교회와 노회나 총회의 정보도 교환하며 국내외의 교회 연합운동 소식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목사나 장로, 지휘자, 반주자 또는 기관장의 이름은 앞면 표지에 넣는 것 보다는 뒷면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사에게 대한 영문 칭호를 기재하려면 "The Reverend Bok Dong Kim"의 완전한 문장을 쓰도록 하고 만일 박사학위가 있으면 "The Reverend Bok Dong Kim, Ph. D 또는 D. D. 또는 D. Min."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표지는 교회 건물을 배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의미가 없다. 차라리 교회 건물 대신에 소속교단을 상징하는 마크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교회의 마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제일 좋은 것은 성화를 신는 것이다. 매 주일마다 성화를 신지 않더라도 교회력, 즉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부합되는 성화를 실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¹⁾

이러한 주보가 처음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시대부터인데 일제강점기란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 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²⁾

초기의 60-70년대는 주보의 활자제작이 어려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파라핀(초) 같은 것으로 코팅된 특수 용지를 요철이 세밀한 특수강판위에 놓고 철판으로 글을 쓰면 글자의 형태 따라 용지에 아주 가는 구멍들이 생기는데 이 용지를 인쇄하고자하는 종이 위에 놓고 그 위에 인쇄잉크를 부어놓고 롤러로 밀면 파인 구멍사이로 잉크가 투과되어 종이 위에 인쇄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1) 김소영 저, 현대예배학, p81,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 두산세계대백과 Encyh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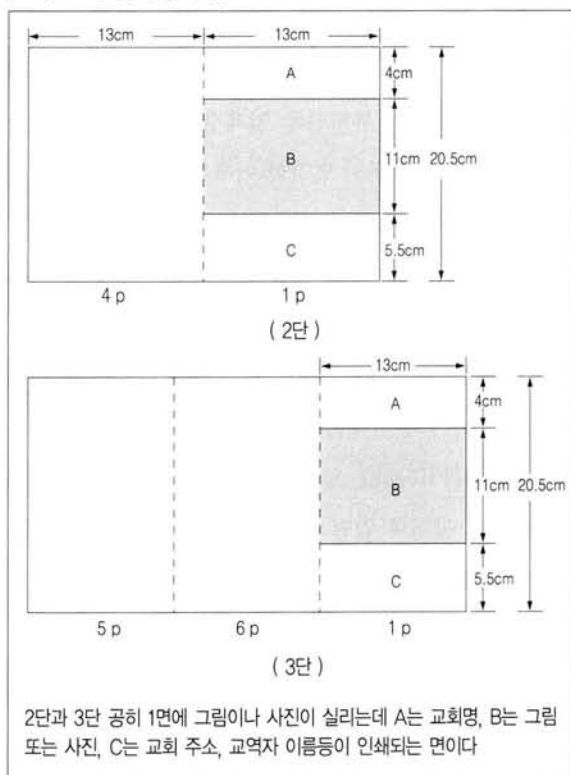
그러던 중 활자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최근에는 컴퓨터편집까지 등장하여 각종 성화나 교회사진을 쉽게 스캔을 받아 인쇄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대 주보의 레이아웃

1). 크기 및 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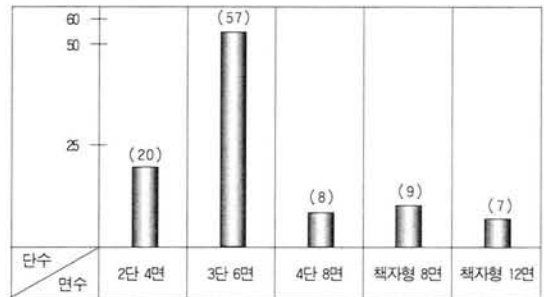
현재 전국교회들이 사용하고있는 주보의 형태와 크기는 일반적으로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26cm×20.5cm로된 2단 4쪽과 39cm×20.5cm로된 3단 6쪽 짜리 및 52cm×20.5cm의 4단 8쪽 짜리가 있으며 책자형으로는 8쪽과 12쪽 2종류가 있다. 이러한 크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크기인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주보 디자인을 해 주는 업체도 생겨나게 되었다. (표 1참조)

(표 1) 크기 및 내용 구성



다음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전국의 101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보의 크기와 면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표 2참조)

(표 2) 크기 및 면수



상기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조사대상 전체의 50%이상이 3단 6면짜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4단8면짜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교회에서 필요한 주보의 공간은 3단 6면 정도면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산지역의 경우 4단 책자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간, 교회간의 경쟁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유무

조사대상 101개 교회 중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교회는 86개 교회이나 나머지 15개 교회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보의 기능이 예배순서나 광고에 있다고 보는 교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주보는 한번보고 버리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참조)

(표 3)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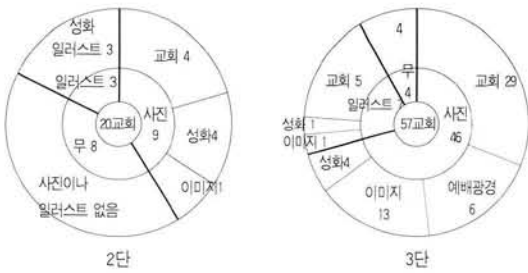
숫자	86	15	101
일러스트레이션유무	유	무	계

3). 수록된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

① 2단, 3단

주보에서 2단과 3단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크기라고 전술한 바 있으며, 상기 도표에는 이들의 1면에 실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표 4참조)

(표 4) 일러스트레이션 종류



(예배광경)

(이미지 사진)

(그림 1) 교회, 성화, 예배광경, 관련이미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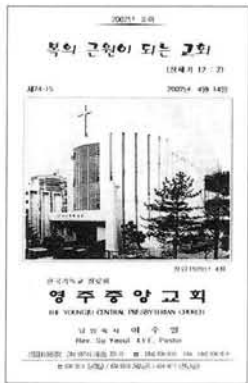
을 싣고 있으며 7개 교회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 놓았다.

표에서 나타난 성화란 교회와 관련된 그림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양치는 목자” 나 “부활”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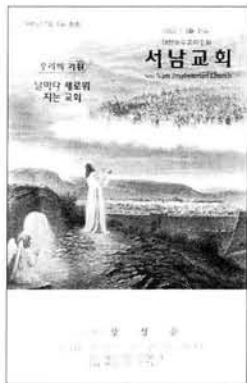
(그림 2참조)

2단이나 3단의 경우 모두 사진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은데 이들 사진을 다시 분석해 보면 교회사진, 성화, 예배광경, 교회와 관련된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참조)



(교회사진)



(성화)



(그림 2) 양치는 목자그림이 있는 주보

또한 이미지란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는데 부활절, 유월절, 맥추감사주일, 성탄절 등 교회력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여 교회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있는가 하면, 생명이 싹트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초신자나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한편 한차원 높은 주보 편집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 (그림 3참조)

2단의 경우 특이한 것은 1면에 아무것도 싣지 않고 모두 글자로만 인쇄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좁은 지면에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진을 싣는 만큼 다른 지면이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3단의 경우는 지면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편집 상 어려움이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다양하게 표현해 놓았다. 총 56개 교회 중 46개 교회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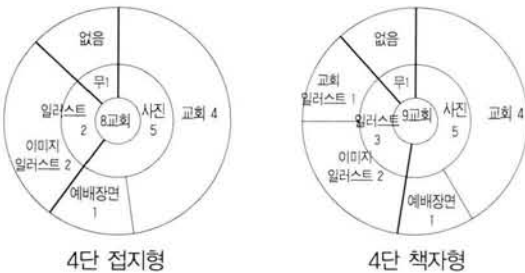


(그림 3) 색다른 이미지의 후보

② 4단 접지형, 4단 책자형

4단은 4단8면 접지형과 4단8면 책자형이 있는데 이 형태는 교회의 편집내용으로는 지면에 상당한 여유가 있는 형태로서 조사결과는 다음도표와 같다. (표 5참조)

(표 5) 일러스트레이션 종류



접지형과 책자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50%이상이 사진을 이용한 것이며 역시 교회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1개씩 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것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교회의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③ 12면이상의 책자형

이 형태는 후보라기보다는 교회의 주간잡지형태로서 다양한 내용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나 제작경비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다. 후보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후보의 기능에 대해 예배순서를 보는 것과 광고라고 한 점, 그리고 후보를 모으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으지 않는다는 답이 대부분

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후보가 12면 이상의 대형책자형으로 제작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표 6참조)

(표 6) 일러스트레이션 종류



12면이상 책자형

상기 도표의 내용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의 분포를 보면 사진으로 표현한곳이 대부분이며 교회건물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점 역시 연구의 대상이며 교회들이 생각을 바꾸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내지에 사용된 주 색상

내지란 후보의 편집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2단4면의 경우 2면과 3면을 말하며 3단6면의 경우는 2,3,4,5면, 4단8면은 2,3,4,5,6,7면을 말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글자로만 인쇄되어있는 면이다. 그러다 보니 칼라인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별색을 이용한 단색인쇄를 하는 것이 몇몇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검정색으로 전체의 7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색의 연상에서 청색이 주는 희망, 소망이란 색 감정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짙은 고동색, 짙은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참조)

(표 7) 내지에 사용된 색상

단수	색				울 컬러
	청색	흑색	짙은 보라색	짙은 고동색	
2 단	2	20			
3 단	12	37	2	3	1
4단 접지형	2	6			
4단 책자형		6		2	
12쪽 이상책자형		3	1	4	
계	16	72	3	9	1

여기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에 대한 상징을 살펴보면 검은색은 고난일을 상징한다. 장례식, 재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를 사용한다. 자주색은 고난일을 제외하고는 사순절 40일간 사용한다. 그러나 처음 4주간은 흰색, 다섯째 주간은 붉은색, 마지막 주간은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³⁾

3) 레스트 저, 이준직 역, 기독교의 상징, p111, 한국기독교문화원

5). 수록된 주 내용

수록된 주 내용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으나 이를 면별로 상세히 분석해 본다면 1면에는 교회사진이나 그림이며, 2면에는 대예배순서, 3면에는 밤예배순서, 4면에는 교회소식과 봉헌자이름 등이 일반적인데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참조)

(표 8) 수록된 주내용

면	1	2	3	4	5	6	7	8
2단	교회 사진	대예배순	밤예배순	교회소식 환영문단				
3단	교회 사진	대예배순	밤예배순	환영 문단	저지센터 구역대배	교회 소식		
4단집지형	교회사진 낮예배순	대예배순	교회소식 자주성교	자녀행사 가정예배 소식	구역보고 공양차 문단	교우소식 집중안내 수요예배	소식 새신자 소개	광고 교회안내
4단책자형	교회 사진	대예배순	수요 예배	자녀주 일씀	공양차 문단	구역 모임	교회 사진	교회안내, 모임안내
12면이상 책자형	교회 사진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봉사 위원	구역 모임	구역 모임	8 현 금
								9 통 계
								10 소 식
								11 소 식
								12 컷

위의 도표를 분석한 결과 특이한 것은 종래에 기재하던 “지난주 통계” 다시 말해 현금액수, 집회에 모인 수 등이 없어졌다는 것과 교회에 따라서는 내지 한 부분에 메모라나 말씀노트란이 생겼는데 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함으로서 말씀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매주 주보를 모을 경우, 간단한 설교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참조)



(그림 4) 메모라나 말씀노트가 있는 주보

4. 교인들의 주보에 대한 의식조사

보다 좋은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인 137명을 대상으로 9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몇 개의 내용만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주보의 전면에 교회사진을 실는 것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인 72명이며 나머지 65명은 나쁘거나 모르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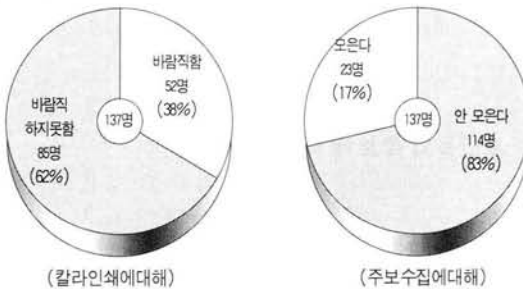
이를 주보의 레이아웃에서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와 비교해 보면 사진으로 된 것이 전체 100여개교회 중 70개 교회인데 그 중에서 교회사진을 실은 곳이 44개 교회로서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보에 교회사진을 실는 것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9참조)

(표 9) 주보1면에 교회사진 게재에 대한조사



또한 후보를 칼라로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62%인 85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표 10참조), 후보를 모으고 있는냐? 는 질문에는 83%가 모으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란 일회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표 10)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단 전면에 대형스크린이나 TV를 설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 찬송가 가사나 중요한 성경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서 후보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 "대형스크린을 이용한다"는 전체의 33%인 45명이, "후보를 이용한다"는 31%인 42명이, "두 가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6%인 50명으로 나타나 후보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1참조)

(표 11) 후보나 스크린의 의존도



5. 문제 및 개선방향

지금까지 한국교회 후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1) 후보의 크기가 다양하며 실용적이지 못하다.

전술된바와 같이 후보의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으나 2단4면으로부터 12면 이상의 책자형까지 그 크기가 다양함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2단4면의 경우는 적은 지면에 많은 양을 실어야되기 때문에 편집 상 어려움으로 레이아웃자체가 복잡하여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1면에 대예배순서가 실리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4단8면 이상의 경우는 지면에 여유가 있어서 여백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후보제작의 근본취지를 떠나 불필요한 기사를 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불필요한 경비지출로 이어져 교회제정의 올바른 사용이 어렵게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러스트레이션의 획일화 및 차별화가 부족하다.

살펴본바 70%가 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진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회사진을 실는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다. (표 12참조)

다음으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전국교회를 상대로 후보를 제작해 주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후보를 사랑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후보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후보제작업체의 경우 1년 52주에 관련된 후보 1면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내지 지면레이아웃을 자체 개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음으로서 이를 보고 전국교회들이 주문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결과 서울이나 지역교

회들간의 주보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생
기게 되었다.

3) 상대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적다.

이미 서술된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진을 이용하
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교회사진이나 성화라고 했다. (표
12참조)

(표 12) 1면에 실린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비교

구분 수	사진 (7개)				일러스트레이션 (16개)			무 없음	계
	교회	성화	예배당경	이미지	교회	성화	이미지		
수	44	8	9	15	7	4	5	15	101

교회사진을 실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
을 때 교인들의 대다수가 문맹으로 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교회사진을 보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
는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므로 교회사진을 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느니 만치 고려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교회력에 따라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제
작되어야 하는데 아직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인식부족으
로 실행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다.

4) 전체적인 색상이 단조롭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단조롭다는 것 은 내지에 사용되어진
색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검정색으로 인쇄되어있으며 다
음으로 청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교회들은
짙은 고동색과 보라색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칼라시대다. 좀더 다양한 칼라로 전술한 '레스트'
의 색채감정을 참고로 하여 개 교회마다의 특성이 살아났
으면 한다.

5) 교회 사진의 크기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다.

1면의 교회사진은 홍보효과상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사진이 너무 크게 실리게됨으로 건물자체가
자칫 위상화될 가능성도 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대변하는 좋은 예로 "교회론"의 저자 김 지
호씨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
성종은 "한국교회문제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가장 먼저 교회관의 잘못
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는 건물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여
건물을 세우는 데에만 급급해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교회의 개념부터가 잘못된 것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자가 조사의 모집단(population)으로 삼았
던 신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
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당을 말한다"라는 설문
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였고, "그
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2%였으며, "조금 그렇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모두 합하면 51.7%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잘
못된 교회관으로부터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현상을 극복하는 지름길인 것이다⁴⁾

이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주보 제작 시 교회사진을
실는 것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김지호 저, 교회론, p.180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III. 결 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주보의 편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
문조사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보를 모아 유형별로 분석
해 본 결과 주보의 크기가 다양하고 실용적이지 못하였으
며, 일러스트레이션의 내용들이 획일화되어 교회간의 차
별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대부분 사진을 이용하여 상대적
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매우 적었다.

또한 내지에 사용된 색상이 대부분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청색또는 짙은 고동색이나 보라색을 쓰는 교회도 몇 개 나왔는데, 색상의 단조로움을 보여 주었다.

1면에는 교회사진을 싣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사진의 크기가 주보화면에 비해 너무 크게 배치되어 자칫 건물 자체가 우상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보에 대해 교인들의 주보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는 주보의 전면에 교회사진을 싣는 것에 대해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조사대상의 50%정도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보를 칼라로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최근 들어 교회마다 전면 강단부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 찬송가 가사나 성경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서 주보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점에서 주보의 편집디자인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주보는 예배순서나 교회소식을 전하는 소식지일 뿐이다.

먼저 타 교회와의 경쟁의식을 버리고 개 교회 실정에 맞는 크기와 면수로 제작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설문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주보를 모으는 교인은 많지 않다. 주일예배시간에 한번보고 버린다. 또한 최근 강단부의 전면대형스크린을 활용하는 교인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주보의 일회성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둘째로 일러스트레이션의 자체제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국을 상대로 주보제작업체들이 제작해 주기 때문에 특히 1면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는 똑같은 내용들로 인해 타 교회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차별화를 위해 자체제작이 필요한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다. 전국에서 몇 교회나 자체제작이 가능할까? 논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디자이너에 의해 제작하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회의 주보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다. 또한 주보만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주보사랑 모임도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주보제작업체나 동아리를 이용해 개 교회만의 독창적인 주보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주보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1면에 실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들이 교회나 성화, 십자가등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일반인들이나 초신자들이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한 후 내지로 시각을 유도하여 예배순서나 교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주보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금창현 저, 편집레이아웃, 도서출판 독자와 함께, 1992
- 2). 봉상균 저, 레이아웃기법, 조형사, 1991
- 3). 장순석 편저, 편집인쇄디자인, 조형사, 1992
- 4). 유관호 옮김, 색채디자인, 정우, 1999
- 5). 김학성 저, 디자인을위한색채, 조형사, 1994
- 6). 김소영 저, 현대예배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7). 레스트 저, 이문식 역, 기독교의상징, 한국기독교 문화원, 1983
- 8). 김지호 저, 교회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